

'메가시티 경제동맹' 광주·전남·전북, 협력과제 추진 속도낸다

남북축 고속도로·호남 관광문화 주간·전력 에너지 등 협의 다음달 국토부 방문 공동의견 전달 국가계획 반영 건의키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을 결성한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력 에너지·고속도로·관광 문화 분야 등을 초광역 협력 과제로 선정하고, 공동 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3개 시도는 지난 20일 3개 시·도의 상호협력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실무협의회’ 영상회의를 열고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실무협의회는 지난 7월 4일 전북 정읍에서 진행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공동선언을 실현하고자 각 시도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3개 시·도는 지난 8월부터 우선 추진사업에 대한 상호 사전협의를 거쳐 사업별로 시·도 각 담당부서가 참여한 분과위원회(산업·경제, 건설·SOC, 문화·관광)도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날 영상회의 참석자들은 우선 추진 사업인 호

남 RE100(재생에너지 100%) 메가시티 조성,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 추진, ‘호남 관광문화 주간’ 공동 개최와 관련한 과제와 추진 계획 등을 협의했다.

실무협의회는 특히 호남 RE100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 호남권 분산 전원 통합 운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뜻을 모았다.

또 고흥~광주, 광주~전주, 전주~세종 등 남북축 고속도로 고도화로 호남권 광역 교통망을 개선하는 방안 등도 협의했다.

이와 관련해 3개 시도는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국가계획(2026~2030년) 반영, 타당성 조사 용역비 확보에 협력하고 다음 달 중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공동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호남 관광문화 주간 공동 개최와 관련해선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2025년 9월에서 10월중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했으며, 2025년 공동주간 필요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배일권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영상회의에서 “수도권 집중이라는 국가질병에 대응하고, 상호협력을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한 시·도만의 의지가 아니라, 3개 시·도의 하나된 의지, 노력, 지혜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실무TF에서 상호 협의와 실무협의회의 논의를 통해 선 경제기능통합 기지인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소멸 절체절명의 위기 대응을 위해 3개 시도의 협력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최우선으로 초광역 SOC, 에너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등 지원의 연계와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의 동력을 만들어 내도록 광주·전북과 폭넓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천영평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을 통해 메가시티 고속도로 등 3개 시도의 협력을 구체화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호남권 공동 현안 대응을 통해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상호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중국문화주간 10주년 행사... 문화·청년 교류

광주시는 “제10회 광주중국문화주간을 열고 한중 문화교류를 진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광주시에 주최하고 주광주중국총영사관이 후원하는 문화주간 행사는 지난 20일 광주자이나센터에서 개막했으며 오는 26일까지 이어진다.

개막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꾸칭지 주광주중국총영사를 비롯한 순리유린 장즈시 인민정부 선전부장 등 자매도시 관계자들과 중국인 유학생 등이 참석했다.

특히 중국문화주간 10주년을 기념해 광주시 자

매도시인 중국 산시성 장즈시의 문화예술단과 허난성 소림사 무술단이 광주를 방문해 경극과 무술 시연을 선보였다. 21일에는 중국어 말하기 대회·한중 노래대회·상식 퀴즈 등 언어문화 경진대회가 열렸다.

남은 기간 요리 시식·카빙(조각술)·공예 등 한중 문화 체험과 사진 공모전, 한중 미술 교류전, 한중 청년 포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과 영상 콘테스트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남북 화해·협력 새시대 앞장 다짐 전남도가 지난 20일 목포에서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을 기념해 대한민국의 평화를 기원하는 ‘전남 평화회의’를 개최했다. ‘평화, 가야 할 그날’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평화회의는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 김영록 전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희중 대주교, 박지원·이재호·신정훈·김원아·권항영 국회의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개회사에서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했던 평화의 울타리가 사라지고, 다시 냉전 시대로 되돌아간 남북관계가 너무 안타깝다”며 “다 함께 잘살자는 대동정신과, 상생과 공존, 연대와 협력의 김대중 평화주의를 바탕으로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새시대를 향해 전남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제공>

'영원한 재야' 장기표, 한평생 노동·시민운동

암 투병 중 별세... 향년 78세 전태일 분신 계기 학생·노동운동



주동일국민회의(국민회의)를 창립하는 데 기여했다. 이후 국민회의와 민주노동운동협의회(민민협)의 통합을 이끌어 민주통일민주노동연맹(민통련)을 창립했다.

1990년에는 현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재오 전 의원, 김문수 현 고용노동부 장관 등과 함께 민주당 창당에 앞장서면서 진보정당 운동을 시작했다. 이후 개혁신당, 한국사회민주당, 녹색사민당, 새정치연대 등을 창당했다.

하지만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15·16대 총선, 2002년 재보궐, 이어 17·19·21대까지 7차례 선거에서 모두 떨어졌다. 세 차례 대선에도 출마를 선언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처럼 한평생 노동·시민운동에 헌신했음에도 결국 제도권 정계로는 진출하지 못해 ‘영원한 재야’라는 별명을 얻었다.

유족으로는 부인 조무하 씨와 딸 하원, 보원 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차려졌다.

한편, 정부는 22일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에 국민훈장 모란장을 추서했다. /연합뉴스

‘영원한 재야’ 장기표(사진)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이 22일 별세했다. 향년 78세.

유족 등에 따르면 장 원장은 담낭암 투병 끝에 이날 오전 1시 35분께 입원 중이던 일산 국립암센터에서 숨을 거뒀다.

1945년 경상남도 밀양에서 4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난 고인은 마산공고를 졸업하고 1966년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했으나 전태일 열사의 분신 사건을 계기로 학생운동과 노동 운동에 투신하면서 1995년에야 졸업했다.

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을 시작으로 민청학련사건, 정계피복노조 사건, 민주당 사건 등으로 9년간 수감 생활을 하고 12년간 수배 생활을 하는 등 1970~80년대 수 차례 투옥과 석방을 거듭했고, 12년간 수배 생활을 했다.

술한 수감·도망 생활에도 민주화 운동에 따른 보상금을 일절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980년대부터 재야운동의 핵심 세력으로 떠오른 그는 1984년 10월 문익환 목사를 의장으로 종교인, 변호사, 퇴직 언론인 등이 참여하는 민

벼멸구·인삼 마름 피해, 농업재해 인정해달라

전남도, 신속 조사·복구비 지원 등 정부에 건의

전남도가 지속적인 폭염(고온)으로 발생한 벼멸구 피해와 인삼 앞줄기 마름(고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남도는 22일 장기간 지속된 폭염(고온)이 벼멸구 피해의 주된 원인으로 농업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정부 차원의 신속한 조사와 복구비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전남지역 벼멸구 피해는 이날 기준 1만 9603ha

로, 전체 벼 재배면적(14만 8000ha)의 13.3%에 달한다. 시·군별로는 고흥(2667ha)이 가장 많고 해남(2554ha), 보성(1988ha), 장흥(1776ha), 무안(1500ha) 등의 순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전남도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폭염 일수(23.1일)가 평년보다 16일이나 길고 평균기온(28.5도)도 평년보다 2.2도가 높은 점 등이 벼멸구 확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폭염으로 인한 인삼 생육 장애도 발생하고 있다. 영암(68ha), 해남(42ha), 나주(19ha), 영광(5.7ha) 등 135ha에서 인삼 앞줄기가 말라 죽는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전남 인삼 재배 면적(378ha)의 38%가 피해를 입었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쌀값 하락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벼멸구와 인삼 피해까지 겹쳐 농가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적극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와 시·군은 벼멸구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방제비 약 46억 원을 지원되는 한편, 벼멸구 확산 추이를 지켜보며 추가로 방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과정

- 일 시 : 2024. 9. 2(월) 오후7시
- 장 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산수오거리~무등산방향 두리보석2층)
- 수강료 : 풍수+사주 = 20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 2024. 8. 26(월) 오후7시
- 장 소 :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공개
- 기강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백파 증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화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공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010-2246-1508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2차)

본 회사는 2024년 8월 21일 사원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였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9월 23일
유한회사 대양운수중기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222-16, 1층
(여천동)
청산인 오숙희

특별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임호성(950304-1XXXXXX)
· 최후주소 : 광주 북구 용주로88번길 61-(용광동)
피상속인 망 임호성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특별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4년 3835호로 신청하여 2024년 9월 19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9월 23일
· 상속인 : 김미화(741227-2XXXXXX)
광주 남구 대남대로 361(월산동)
· 신고기간 : 2024. 9. 23. ~ 2024. 12. 3.
· 채권신고처 : 상속인 김미화의 주소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